

# 우리들의 부마 1979

부마민주항쟁 교육자료

중·고등학생용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유신철폐

민주주의

유신  
정권  
물러  
가라

독재  
타도

정치탄압  
중지하라

언론자유!



# 모두 함께였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2019) 대통령 기념사 일부 -



# 지금, 여기 우리들의 부마(1979~)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진정한 시민항쟁”

- 대학생

“부마민주항쟁의 의지가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 대학생

“유신체제를 종식 시킨 시민들의 저항”

- 교수

“새로운 민주주의의 틀을 잡은 역사적 전환점”

- 노점상

“부마민주항쟁이 없었다면 유신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

- 고등학생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

- 고등학생

“오늘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건”

- 경찰 공무원

“강고한 독재체제를 무너뜨린 항쟁”

- 대학생

“시민의식의 성장은 부마민주항쟁부터”

- 대학생

“10·26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

- 전투경찰

\* 항쟁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이 돌아본 부마민주항쟁



# 박정희 장기집권의 모순이 러져나오다

## 독재, 자유를 빼앗아 가다

정부는 '건전하고 명량한 사회 육성'을 내세우며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했다. 무슨 노래를 부를지도, 머리를 기르는 일도 정부가 정해주었다. 길거리에서 경찰이 여성의 치마길이를 재고 남성의 긴 두발을 강제로 자르는 단속과 검열의 시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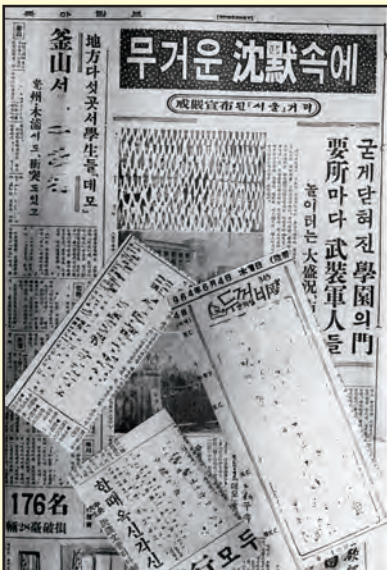
### 거리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잘라버리게 당장 이리와!”  
 “어디 치마 좀 재봅시다”  
 “야간 통행증 주세요. 없으면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 방송국 - 금지가요

왜불러 ▶ 왜 반말해. 너 금지  
 거짓말이야 ▶ 사람들을 불신하게 하네.  
 물 좀 주소 ▶ 물고문을 연상시키잖아!



### 언론사

“데모하는 내용은 기사에 신지마!”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기사는 작게 처리해.”



### 고등학교

“학교를 군대로!”



### 공장 등 일터

“새벽중이 울렸네~”  
 “일하면서 싸우자  
 우리는 직장예비군!!”

## 역사하기

▲ 위 사례 중 자유가 침해당한 가장 심각한 사례를 고르고 그 이유를 적어보자.



##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

박정희 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금지한 후, 유신헌법을 선포하였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1/3 의석 추천권,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모든 법관에 대한 임명권 등을 부여하였다. 이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침해하는 조치였다. 심지어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영원히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 통일주체국민회의 집회공고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집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집회일시 : 1972년 12월 23일 오전10시
2. 집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체육관
3. 의안의 제목 : 대통령 선거

1972년 12월 18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 박정희

### 8, 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박정희 단독 입후보)

참석 대의원	찬성표	반대표	무효표
2,359명	2,357표	0표	2표
2,578명	2,577표	0표	1표

박정희 유신정권은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유신헌법을 비판하거나 개헌을 청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였다.



## 역사하기

▲ 유신헌법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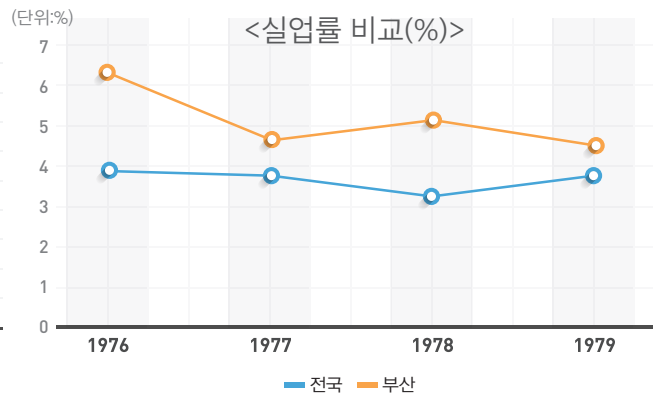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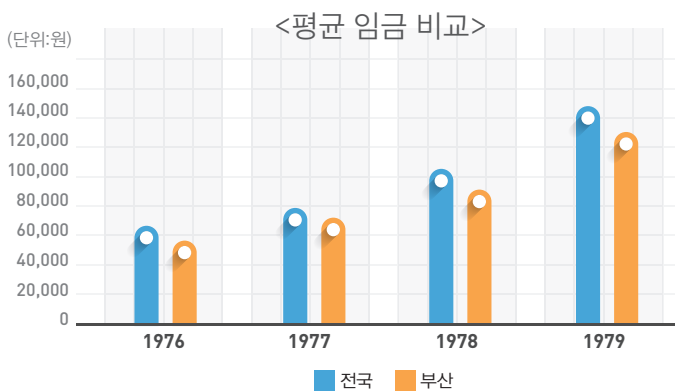


## 1979년 부산과 마산 경제가 불황에 빠지다

1970년대 말 세계 경제가 침체되자 수출 경기 악화로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 빠졌다. 정부는 대기업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 문제는 그냥 두고, 교통 요금과 연탄값 등 서민들의 생활 물자 가격을 인상하고 부가가치세를 신설하였다.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중소기업, 영세 상인, 도시 노동자들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부산은 신발, 의류, 합판 등 영세한 규모의 수출 공장이 많았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부산의 경제상황은 악화되었다. 평균임금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부도율과 실업률은 높아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하루를 일하면 고작 2,100원을 주면서 하루 빠지면 6,630원이나 월급에서 빼 버리니 아파도 쓸 수가 없다... 하루 12~13시간 일해도 월급이 너무 적다. 더구나 월급의 절반이 방세로 나가다 보니 저축은 생각지도 못한다. 절약하기 위해 친구와 같이 살아도 부족한 건 매한가지다. 연탄값, 쌀값을 빼고 나면 반찬을 살 돈이 없어 김치 하나만 담가 놓고 먹는 게 고작이다. 그나마 아침을 굶을 때가 많았으니까...

<마산수출자유지역 노동자의 일기>

### 역사하기

▲ 1970년대 말 부산과 마산 사람들의 생활여건이 나빠졌던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독재에 대한 저항

박정희 정권의 독재체제가 계속되고, 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국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시민 모임이 생겨나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키워나갔다. 1978년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는 독재에 저항하기를 바라는 노동자와 학생, 시민의 바람이 모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

1970년대 후반



### <다양한 시민 모임>

부산양서협동조합이나 경남양서보급회처럼 지역사회에서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모임이 생겨났다. 이들은 토론회와 강연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2

1978. 12. 12.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무소속
전국	31.7	32.8	7.4	28.1
부산	29.8	39.6	12.4	18.2
마산	38.0	34.9	-	25.7

■ 여당 ■ 야당

### <총선에서 야당 승리>

1978년에 치러진 제10대 총선은 야당의 투쟁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드러난 선거였다. 큰 지지를 받은 야당은 박정희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선언하였다.

3

1979. 8. 11.



### <YH무역노조의 농성>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은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하였다.

4

1979. 10. 4.



### <야당 총재 김영삼 제명>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였다. 이를 구실로 여당은 국회에서 사법경찰을 동원해 야당 의원 진입을 차단한 가운데 김영삼 의원을 제명처리 했다.

역사하기

▲ 위 사건 중 하나를 정해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 검색, 도서 등을 활용해 조사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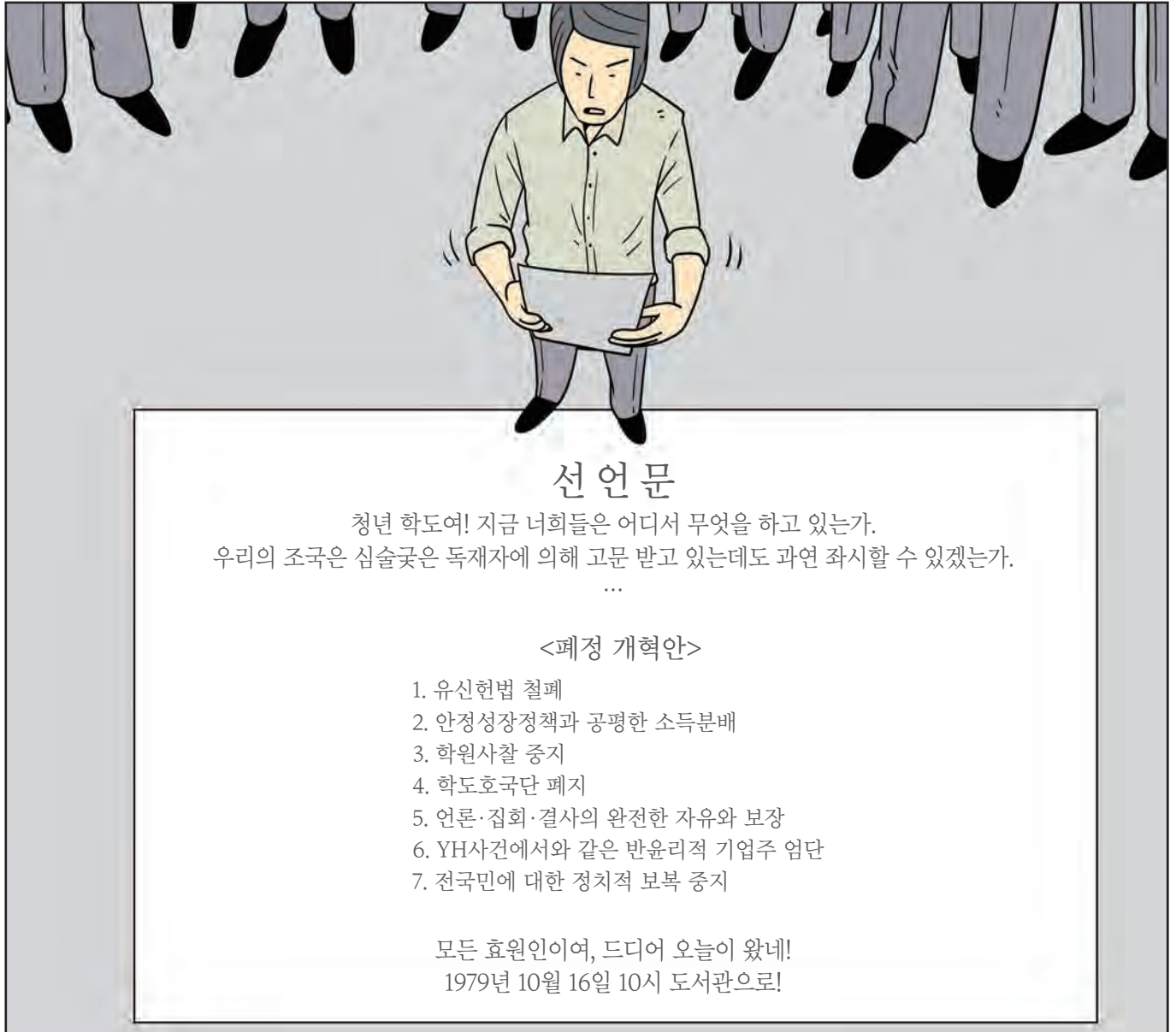




# 부산·마산의 시민들, 유신 권력을 무너뜨리다!

## “유신철폐” “독재타도”의 외침이 시작되다!

10월 15일 부산대학교에서 두 건의 선언문이 배포되고 학내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다음날인 16일 오전 10시 전후 부산대학교 도서관 앞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인문사회관 강의실에서는 한 대학생이 ‘선언문’을 배포하고 시위에 나설 것을 연설해 학생들을 이끌고 도서관에 모여있던 학생들과 합류했다. 운동장에서 시위대는 약 3천명까지 불었고 “유신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를 외쳤다.





## 부산 시민들도 독재타도 시위에 참여하다

다음날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나 온천장을 거쳐 교육대학 앞까지 행진하였다.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격려하였다. 진압부대에 길이 막히자 대학생들은 광복동에 있는 시청 앞에서 집결을 약속하고 해산하였다. 밤에는 퇴근한 직장인들이 결합하여 시위대 규모가 커지고 시위지역도 중구에서 동구 일부와 서구까지 확대되었다.

17일, 부산대 학생들의 시위 소식을 들은 동아대, 고신대 학생들은 광복동으로 가서 시위에 합류하였다. 회사원, 고등학생, 노동자, 상인들도 시위에 참여하였다. 시민들은 시위대를 응원하고 경찰을 비난했다. 시위대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사에 불을 질렀고, 자신들을 억압했던 경찰서에 돌을 던졌다. 세무서와 경남 도청도 시민들의 돌 세례를 받았다.



18일 0시, 정부는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 되었다.



- 10.18. 0시, 부산에 비상계엄령 선언  
오전, 대학생들의 서면 시위 시도  
저녁, 남포동, 서면 등에서 시민들의 가두 시위  
군인들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부상자 속출
- 10.19. 저녁, 시위대가 남포동 파출소 습격
- 10. 21. 학장동에서 유신반대 **벽보** 발견

“자유당 복사판이 부산에 있나니 정의의 불꽃들이여  
활활 타올라라, 시민들은 침묵으로 후원하노라.  
오늘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역사 가치가 좌우될 것이다”

### 역사하기

1. 선언문의 폐정개혁안 중 부산 시민들이 가장 공감했을 것을 2개 고르고, 선택의 이유를 짝에게 설명해보자.
2. 시위대가 공격한 곳을 찾아보자. 그 이유를 말해보자.





## 마산 시민도 “유신철폐”를 함께 외치다

17일, 마산으로 부산의 유신반대 시위 소식이 전해졌다. 대학생들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였다. 18일 아침, 부산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경남대학교 학생들은 도서관 앞에 모여들었다. 한 학생이 유신독재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호응하면서 교내 시위가 시작되었다. 학생 시위에 놀란 학교 당국은 교내 방송으로 휴교를 알렸다. 대학생들은 시내로 나갔고, 마산에서도 유신반대 시위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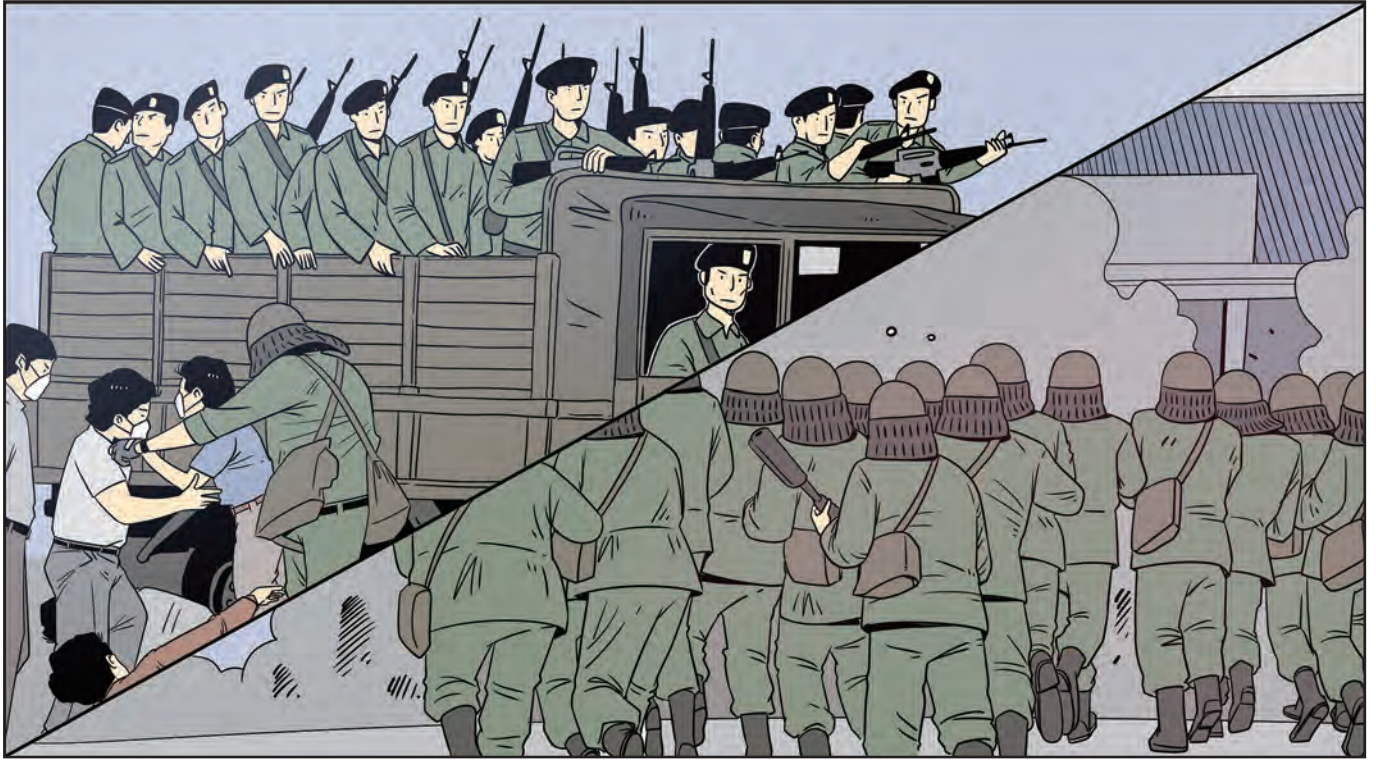
경찰들은 대학생과 시민들을 가리지 않고 곤봉으로 때렸다. 퇴근 시간이 되어 노동자들과 직장인들이 참여하여 시위대는 더욱 커졌다. 어둠이 내린 후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자, 시위대는 주변 상가를 향해 소리쳤다. “불 꺼라” “불 꺼라” 는 소리가 커지자 상가와 사무실의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시위대는 폭력적으로 진압하던 경찰서를 습격하였다.





## 마산 시민들, 군인들의 폭력에 저항하다

18일 밤 마산 시내 곳곳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그날 밤 시민들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총을 든 채 행군하는 군인들을 보았다. 위수령이 내리기 전에 이미 군인들이 시민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군인들에게 저항하면서 시위를 이어갔다. 그 다음날, 시위가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대학생, 고등학생, 노동자, 상공업자, 실직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시위대는 유신 정권의 부당함을 외쳤고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18일부터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20일 위수령이 선포된 후 군인들이 시내를 통제하였다. 시위는 줄어들었지만,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줄어들지 않았다.

### 故(고) 유치준 씨

평범한 가정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 근처 공장신축부지 노동자였다. 10월 18일 퇴근하던 중 공화당사와 파출소를 습격하고 달아나던 시위대를 뒤쫓던 경찰의 곤봉에 맞아 쓰러져 다음날 번사자로 발견되었다. 주머니에 신분증이 있었지만 경찰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행불자로 처리하였고, 일주일이나 지난 후 가족들에게 죽음을 통보하였다. 2019년, 부마민주항쟁 관련 첫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8일, 자취방에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있었어요. 함성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보니, 시위를 하더라고요. 골목에서 구타당하는 시위대를 도와 준 후 시위에 참여했어요. 사람들과 마산역으로 갔는데, 총소리가 들려서 무서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시위에 참여한 이유는 ….”

### 역사하기

1. 마산 시민들이 부산의 10·16 시위에 공감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2. 당시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 이유를 추측해보자.



## 유신 권력이 붕괴되다



1979년 10월 18일 부산시청 앞 모습

부산과 마산 시민들이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자 정부는 당황하였다.

더 많은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려고 하였다.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에 자극받은 고등학생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10월 20일 부산의 혜화여고 학생의 가방에서는 서면에서 모이는 쪽지가 발견되었다. 같은 날, 영남상고, 부산남고, 경남고 학생들 수백 명이 데모를 하기 위해 남포동 극장가에 모였다. 계엄사령부는 군인을 긴급히 남포동에 배치하여 학생들을 강제 귀가시켰다. 22일에는 동래고, 브니엘고, 동래상고 학생들의 시위 조짐이 있었다.

고교 시위 소문이 확산되자 무장한 군인들이 22일부터 26일까지 고등학생의 등교 시간에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협하였다. 장갑차와 총을 든 계엄군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부산과 마산의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경호실장과 중앙정보부장을 만났다. 부산과 마산에서의 시위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경호실장과 중앙정보부장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중앙정보부장** : 시민들은 정부에 대해 불신이 대단했습니다. 자칫하면 시위가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통령** : 앞으로 부산과 비슷한 일이 생기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경호실장** : 각하,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 정도를 죽이고도 까닥 없었는데, 우리가 시위하는 사람 1~200만 명 죽인다고 까닥이나 하겠습니까.



중앙정보부장은 더이상 시민들을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호실장에게 동조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총을 꺼내 대통령과 경호실장을 쏘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죽었고, 유신독재는 끝났다.

### 역사하기

▲ 유신독재가 무너진 이유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다. 아래 의견을 참고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 A**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결정적이었다. 석유 파동과 수출 부진으로 생계가 어려웠고,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 때문에 살기 어려워진 시민들이 유신반대에 나섰다.
- B**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을 군대를 동원해서 억압하려고 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쏜 사건인 10·26사건으로 유신독재가 무너졌다.
- C**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유신독재를 무너뜨렸다. 시민들은 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서 유신독재를 막고자 했고 부마민주항쟁도 시민들이 참여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 활동하기 |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역사 신문 만들기

부마민주항쟁 당시는 언론 통제가 심해서 부산과 마산의 시위 소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시 진실과 자유를 추구하는 언론인이라면 어떻게 썼을지 상상하면서 기사를 작성해봅시다. 팩트 체크는 당연히 해야겠죠?

- ① 다음 중 하루로 날짜를 설정하기 ☞ ① 1979.10.16. ② 1979.10.18. ③ 1979.10.26.
- ② 그날의 의미가 드러나는 헤드라인을 정하기
- ③ 주요 사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기 ☞ 6하 원칙에 따라 보도기사를 작성하기. 자료는 '부마아카이브'를 활용하자
- ④ 기사에 맞는 사진을 골라보기 ☞ '부마아카이브>부마를 보다'에서 선택!
- ⑤ 인터뷰 기사와 제목 작성하기 ☞ '부마아카이브>부마를 듣다' 중 1명을 선택!
- ⑥ ~ ⑦ 신문 이름을 정하고 발행인에 작성자의 이름 써보기
- ⑧ 4~12쪽을 참고하여 연표를 완성해보자
- ⑨ 완성한 신문을 발표할 것

① 1979년 10월 ○○일

발행정보	⑥	⑦
------	---	---

---

②

④

③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⑧

1972.10.17 유신헌법 선포

1978. 총선에서 야당 승리  
제2차 석유 파동

1979.8.9. YH 무역 사건

1979.10.4.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1979.10.16. 부산대학생 시위  
☞   시작

1979.10.17. 부산 시민들 시위 확대

1979.10.18. 부산에 계엄령 선포  
경남대학생 시위 시작,  
마산 시민들 시위 참여

1979.10.20. 마산에 위수령 선포  
이후 시위 지속

1979.10.26.    
☞ 유신 독재 끝

---

⑤

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부마민주항쟁에서 6·10민주항쟁으로

## 다시 들어선 군사 정권, 시민들 계속 민주주의를 외치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독재가 끝났다고 생각한 시민들은 이제 민주주의가 실현되리라 기대하였다. 하지만, 박정희 군사 정변을 모방한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① 18년간의 독재가 끝났다(1979.10.26.).



② 부마민주항쟁 진압에 참여한 군인 전두환은 12·12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1979.12.12.).



③ 5월의 봄,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였다(1980.5.15.).



④ 군인들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구속시켰다(1980.5.17.).



⑤ 5·18민주화운동,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계엄군은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1980.5.18.~5.27.).



## 6·10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다!

사람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잊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전두환 군사정부에 맞섰다.



⑥ 부산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어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이 일어났다(1982.3.18.).



⑧ 1987년 6월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열린 5·18 사진전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섰다.

학림사건·부림사건(81년 6월~9월)

⋮

서울안동간첩단 사건 발표(85년 3월)

삼민투위 사건 56명 구속(85년 7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발표(85년 9월)

서울대 민주위 26명 구속(85년 10월)

간첩단 16명 발표(85년 11월)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86년 6월)

건국대 1,200여명 강제 연행(8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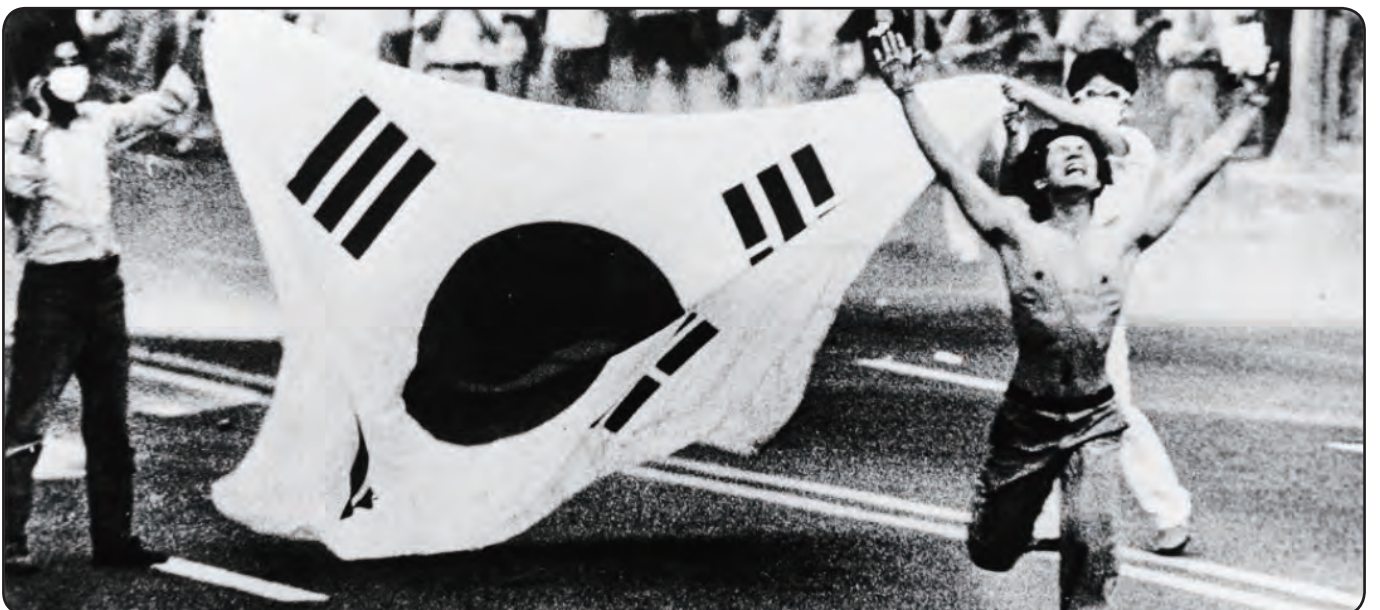
ML당 사건 발표 27명 검거(86년 10월)

반제동맹당 사건 발표(86년 11월)

⑦ 전두환 정권은 가짜 간첩단을 만들고 각종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 대학생들과 민주 시민들을 탄압하였다.



⑨ 전두환 정부가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고문이 이어졌고, 서울대 학생 박종철의 죽음은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⑩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시민들은 함께 민주주의를 외쳤다. 6·10민주항쟁을 통해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주의를 얻어냈다.



# '우리들의 부마' 역사 하기

**활동 1** 지금까지 배운 '부마민주항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내용은 무엇이었나 생각해보고, 가장 활용하기 편한 SNS를 통해 내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확인하세요!

- ① 사진과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지, 사진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 ②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검색어를 적고 사진을 배치합니다.
- ③ 친구들과 공유할 때 사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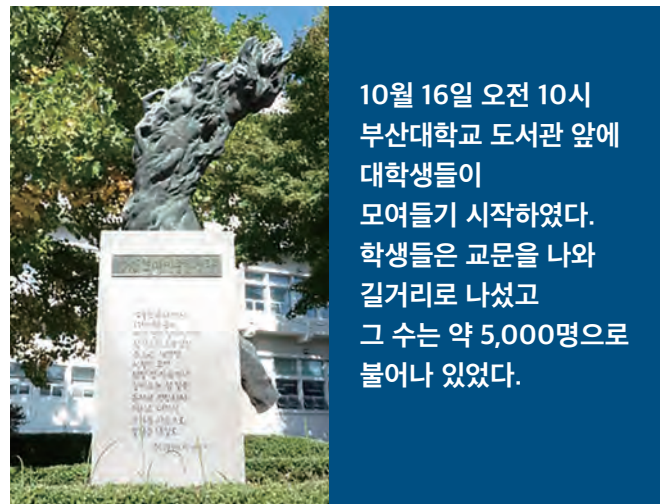
## 활동 2 카드뉴스 만들기

- 가. 부마민주 항쟁을 주제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보자.
- 나. 아래 단어 중 몇 개를 선택해서 자료를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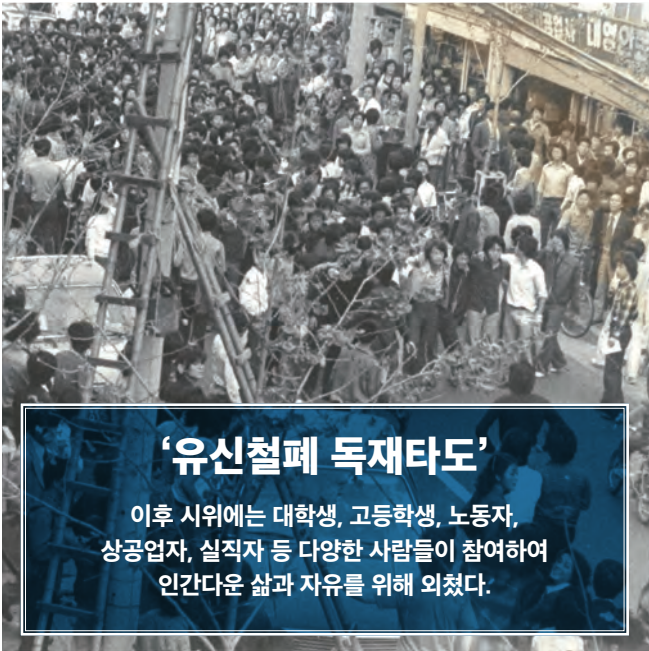
박정희, 마산수출자유지역, 부산의 대학생, 마산의 대학생, 10월 16일, 10월 18일, 10월 26일, 독재와 민주주의 등

- 다. 찾은 자료를 이미지와 결합하여 스토리를 구성해서 10매 전후의 카드 뉴스를 만든다.
- 라. SNS에서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예시) 부마민주항쟁을 주제로 학생이 만든 카드 뉴스입니다







## ‘유신철폐 독재타도’

이후 시위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노동자, 상공업자, 실직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위해 외쳤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시위가 점점 확산되자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이들의 시위는 더욱 커져 갔고 부산을 넘어 마산, 경남 일대로 널리 퍼져 나갔다. 군인들이 시내를 통제하면서 시위는 줄어들었지만,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줄어들지 않았다.



## ‘10-26사건’

그로부터 열흘 후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되면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린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이후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불을 지피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결과를 낳았다.



## 모두가 함께였던 ‘그날’ ‘부마민주항쟁’

**활동 3**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을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재 헌법은 6·10민주항쟁 직후에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을 담아 만들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세월호 참사 등을 거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달라졌다. 30년 전의 헌법으로는 이런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없기에 정부는 2018년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달라진 점을 찾아보자.

**(A) 현재 헌법 (1987년 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B) 개정 헌법(안) (2018년 제출)**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 (1) 현행 헌법(A)과 비교해서 개정 헌법(B)의 달라진 점을 찾아 줄을 그어 보자.
- (2) 줄 그은 것을 바탕으로, 개정 헌법이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

.....

.....

.....

.....



나. 다음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어느 쪽에 공감하는지 자기 생각을 써보자.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은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민주화운동입니다. 현재 헌법에는 4·19혁명만 있어서 60년 동안 한국 국민들이 일궈온 민주주의 발전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마민주항쟁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건을 헌법에 다 포함시키는 것은無理입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건을 다 넣는다면 대구의 2·28사건, 마산의 3·15의거 등도 다 포함해야 하지 않나요? 헌법에는 상징적인 사건만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 너무 최근의 사건이 아닌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4·19혁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

---

---

---

---

---

---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할 사람이 많이 있소

당신이 아니더라도  
그런 글을 쓸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 할 사람 많아요

그렇다면  
침묵과 위선, 비겁과 굴종은  
누구의 할일이란 말인가

- 신용길, 「브레히트를 생각하며」

